



##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5%로 하향 조정

이정환 선임연구원

■ IMF는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3.6%에서 3.5%로 0.1%p 낮추었고,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 4.1%에서 3.9%로 0.2%p 하향 조정하였음.

- 2012년 2/4분기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를 반영
- 2011년 11월 당시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한 뒤 1월 3.5%로 낮추었다가 4월 3.6%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7월에 다시 하향 조정
-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2011년(3.8%), 2012년(3.5%)에 이어 2013년(3.9%)까지 3년 연속 3%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동반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선진국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둔화를 예상
  - 미국 경제는 당초 전망치보다 0.1%p씩 낮아져 2012년 2.0%, 2013년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고, 유로존은 2012년 -0.3%, 역성장 전망치가 유지되었으며, 2013년 전망치는 0.7%로 당초보다 0.2%p 하향 조정됨.
  - 반면, 일본 경제성장률은 2012년 기존 전망치(2.0%)보다 0.4%p 높은 2.4%로 전망하였으나, 2013년 전망치는 당초보다 0.2%p 낮춘 1.5%로 전망됨.
- 신흥국 경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화되어 2012년과 2013년 각각 5.6%와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12년 4월 전망치보다 각각 0.1%p와 0.2%p 하향 조정됨.
  - 중국의 성장률은 2012~2013년 각각 8.0%, 8.5%로 0.2%p와 0.3%p, 인도는 동기간 6.1%와 6.5%로 당초 전망치보다 0.7%p씩 하향 조정되었으며, 브라질은 2012년 0.6%p 하향조정, 2013년 0.5%p 상향 조정됨.

## ■ IMF 전망의 전제조건은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유지임.

- IMF는 미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
  - 첫째,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정책 대응으로 2013년에는 재정위기가 점진적으로 완화.
  - 둘째,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을 의미하는 재정절벽이 2013년에 발생하지 않음.
  - 셋째, 신흥국의 경기부양 실시

## ■ 향후 경기회복 위협 요인으로서는 유럽 재정위기 악화, 미국의 재정절벽, 미국과 일본의 재정 건전화 계획 실패, 세계경제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경제 경착륙 등이 지적됨.

- IMF는 세계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보다 더 크게 우려되는 것은 경기회복 위협 요인이라고 밝힘.
- 유로존의 정책대응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할 가능성,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감세 연장 합의 실패로 인한 재정절벽 문제 현실화, 미국·일본의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실패로 인한 채권·외환 시장 혼란 발생,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이 경기회복 위협 요인으로 지적됨.

## ■ IMF는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해 종전보다 더욱 경기부양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함.

- 선진국은 금리인하와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수단을 포함한 통화정책이 필요
  - 미국과 일본은 신뢰성 있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개혁 추진이 필요
  - 유로존은 6월 EU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은행동맹·재정통합을 위한 추가노력이 필요하고, 구제금융 국가의 경우 차질 없는 구조개혁 이행이 필요
-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성장률 저하가 정상화과정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과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인 국가는 추가 금리인하를 검토할 필요
  - 재정여건이 지속가능한 국가는 자동안정장치를 완전히 작동시키고,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는 추가 재정지원을 고려해야 함.

(IMF, 7/16)